# 마을은 작아도





다지리 어업협동조합 마스코트 캐릭터 TAJIRIN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아침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사러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로 붐비며, 즉석에서 한번 맛보십시오! 먹을 수 있는 휴식 코너도 있습니다.

12월 30일·31일에는 대매출 행사를 개최 ※오본과 연시에는 임시 휴업 주차장 완비/임시 주차장과 합하여 200대



다지리 어업협동조합이 어선을 띄워 어업 체험, 간사이 공항 크루징, 각종 해산물 바비큐를 레공하고 있습니다.

어업 체험 풀 코스 ●어업 체험+간사이 공항 크루징+해물 바비큐

예약·문의 다지리 어업협동조합·다지리 해양 교류 센터

(우)598-0093 오사카부 센난군 다지리초 린쿠포트키타 1번 TEL.072-465-0099 FAX.072-465-1944 접수 시간/7:00~17:00(화요일 정기 휴일)



시간/7:00~17:00 (화요일 정기 휴일)

# 다지리의 바다에서 기분도 상쾌하게 피싱! 초보자부터 급자까지 본격적인 낚시를

※예약 없이 오시는 경우, 당일









또 하나의 다지리초 만남과 활기, 충실한 시설과 이벤트가 풍성!

1994년에 개항한 간사이 국제공항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국제선·국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완전 24시간 운용 국제 거점 공항입니다. 일본의 서쪽 관문 시설로 자리를 잡았고, 항공 여객 수는 거의 매년 사상 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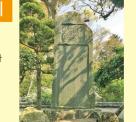
다지리초 래핑 버스



등이 모셔져 있습니다. '호키시대 요시미 오사지가 내방하여 이곳을 개발하고 마을을 조성할 때, 그의 선조 가스가다이묘진을 권청하여 모셨다'(만세기).

1913년에 이마이 사지헤이, 다이몬 규자부로, 미치우라기헤이 3인의 양파 재배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비는 양파 재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양파 생산량 등이 적혀 난카이 본선 '요시미노사토 역에서 400미터, 도보 4분

2018.2



본사에는 우케모치노카미(음식의 신)가 모셔져 있고, 도쿠가와시대에는 이 신사를 이나리다이묘진이라고 불렀습니다.(본전은 오사카부 유형 문화재로

난카이 본선 '요시미노사토' 역에서 900미터, 도보 15분



다지리초 사무소 앞에서 망루와 장식수레가 모두 모이는 것은 보기 드문 풍경입니다. 멋진 식수레와 멋진 망루를 한꺼번에





다지리 역사관은 인테리어에 멋진 스테인드글라스를 사용한 아르누보 양식의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건물이 연결된 보기 드문 다이쇼시대의 건축입니다. 원래는 지리초 요시미 출신으로 메이지시대부터 디이쇼시대까지



이 섬유 업계의 중추를 담당하여 '면의 왕'이라고 불린 니구치 후사조 씨가 그가 설립한 요시미방적에 인접한 장 겸 영빈관으로서 건설한 것입니다. 이 외에 그는 원면을 구입하기 위한 항구와 도로를 정비하고 교육과 트목을 비롯하여 한와선의 도입에 힘쓰는 등 사회 기반 정비에도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다지리 역사관은 마을 발전의 초석이 된 방적업의 번영과 기업가가 갖추고 있던 풍류의 소양을 함께 실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 구지리초 발전의 초석.



갓 잡은 것이므로

선도가 다릅니다. 꼭



(수확기는 5월경)

센슈 양파의 발상지로 알려진 다지리초는 옛날부터 활발하게 양파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상의 양파라고 불리는 요시미 조생 품종은 모양이 납작하고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래 보관할 수는 없지만, 육질이 부드럽고 단맛이 강한



(수확기는 6월~9월경) 껍질이 아주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센슈 지역의 향토 음식이었던 물가지 겉절이가



다지리 어항의 어획량 상위를 차지하는 붕장어는 튀김이나 양념구이로 해서 먹습니다. 일요일 아침시장에서는 생선상자

(7월~12월)

다양한 어패류가 서식하는 오사카만은 새우나 게 등 먹이가 풍부하고 조수의 흐름이





어업 체험에서 잡은 생선은

개방감 넘치는 '어가 레스토랑'

에서 그대로 바비큐!